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베드로전서 3:15

김현덕 목사님 (필리핀 마닐라안디옥교회)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한인 과 현지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한인이 1/3, 현지인이 2/3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 자리를 본의 아니게 맡고 있어서, 교장이자 교목으로, 또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필리핀은 국민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가?

1. 모든 세상과 종교는 죄 가운데 있다.

(1)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

물론 필리핀은 로마 가톨릭이 국교다. 가톨릭에는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제도와 종교의식이 많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가톨릭은 왜 이렇게 잘못된 종교와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복음이 세상 권력과 손을 잡은 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 권력 추구의 목적으로 생성된 가톨릭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병장수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 복을 받겠다고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부활절 때마다 손과 발에 실제로 못을 박는다. 그러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기의 복,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출32:1). 그러면 개신교는 또 어떤가. 램턴트들은 또 어떤가. 그들 안에서 이 문제를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 43:7)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사43:21). 우리의 소원성취, 만사형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2) 죄의 본질과 의미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라고 한다. 과거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바뀌어 버렸다.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미국의 신학자 스캇 펠은, 모든 악의 근원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했다.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까지도 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믿음이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한다.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가는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높이 가는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두드려 보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다(요일 2:15-16). 우리의 세사적인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달라고 한다. 하

나님을 접섭하지 않게 해 드릴테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구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사단이 유혹할 때 쓰는 수단이었다(마4:1-11). 세상의 힘,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을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게 해 달라고, 내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구한다. 마귀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주님은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생겨난 종교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1)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쓰는 단어, '야다' 혹은 '기노스코'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하게 알아야 한다.

(2)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여기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계약과 같은 것이다. 조건도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다. 우리 측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나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흔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미 그리스도는 남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알라딘의 램프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본문을 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로 삼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헬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신다. 우리 생각과 전 영역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은 이미 자기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종이 되기를 작정하는 것이다. 신약의 사도들은 기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계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3. 거룩하게 하라.

(1)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보고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다([NIV] set apart

Christ : [KJV] sanctify the Lord God). 여기에서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 지식, 명예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살아하는데, 그런 것과 그리스도를 같은 수준으로 놓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세상 것이 같은 수준에 놓일 수 있는가. 세상 것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다(엡2:3). 바퀴벌레가 아무리 잘생기고 선하고 꾸며도, 바퀴벌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웃음) 이유가 없다. 그냥 싫어서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실 수밖에 없다. 진노의 자녀다. 세상의 것들이 진노의 자녀를 잠깐 만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복음은 이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버리는 것이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다른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영광에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분이시다(빌3:21).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일3:1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 축복 주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2)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한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행복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라고 한다. 도덕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기물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세상 사람처럼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을 추구한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이라는 세계에 잇대어서, 거기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의미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스님, 신부님들이 더 잘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별로 착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내가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 가니까 아니었다. (웃음) 그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다. 구원받았는데 막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고전15:19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가치있는 것을 가지고도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우매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세상 사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물을 것도, 대답할 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다른 소망이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말한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 국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간절하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직접 가르친다. 4학년 될 때까지 직접 계속 가르친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것 믿으면 인생 문제 끝,' 그게 복음이 아니다. 모든 문제 끝인데 현상 문제는 계속된다. 나도 30대 중반이 되니까 살이 안 빠진다. (웃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빠진다. 그런 해결자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다. 예수를 믿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보고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지음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딤후4:5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전도도 수단이 아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자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적 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승리는, 높은 자리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요일5:4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승리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 등지고 동굴 들어가서 말씀만 읽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데 도달하는 것으로 단정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고지론(高地論)'의 주장대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 높이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를 믿으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램네프다. 끝까지 남는 자다. 성경은 램네프 사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보니까, WCC와 교황 방한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 내시는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램네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램네프였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라. 어느 위치에 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시기 바란다. 필리핀에서 느낀 부분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참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 사랑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 서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